

第 89・90・91・92・93・9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8. 5. 6~5. 9/6. 30~7. 3/8. 25~8. 28
9. 3/9. 14/9. 21~9. 22)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 89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8. 5. 6. ~ 5. 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8 • 5 • 통권 제59호

I.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III.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81
IV. 부 록	
▶ 의사일정(안)	83
▶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8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5월 6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영규)
2.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윤위원 외 3인 위원)
4.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 의사계장 신용건)

(11시 00분 개식)

(일동 기립)

● 의사계장 신용건

지금부터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제89회-제1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11시 02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부의장 안병일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하신 사정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도 4월 29일 신용철교육위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동일자로 사임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 4월 25일 집행청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4월 2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8-5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이경윤위원님 외 세분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 및 제8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그리고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8년 5월 2일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금회에는 이경윤위원님 외 세분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5분)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8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으로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으신 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5월 7일 1일간의 의안관련 현장 방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시 07분)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경윤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경윤 위원

이경윤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 외 세분의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 일시는 제89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인 5월 8일 오전 10시 및 5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장 각 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급 간부 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윤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이경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여 5월 8일 제2차 본회의 및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11시 10분)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구관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취득재산은 없으며 처분재산은 영동군농·공고등학교의 실습지 6,497㎡를 영동보건소 청사 이전부지로 영동군에 매각하고자 하며, 향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인 충주시 구 창암초등학교외 3개교의 토지 5만 9,483㎡와 건물 4,104㎡, 그리고 공작물 21종, 입목축 5백95본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 변경계획안 : 별첨2

(끝에 실음)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

오는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3분)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다음은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
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기수, 박동기 두분 위원님
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분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이기수, 박동기 두분 위원님이 선
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자 합니다.

본회의 산회후 오늘 오후와 내일은 의안
관련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5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에는 교육
행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교육행정 질문
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
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박동기, 이경윤.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공보담당관 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 윤본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김홍묵.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별첨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5월 8일 (금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광수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2일동안 의안관련 현장을 방문하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김정길위원님, 조일환위원님, 정만재위원님, 이기수위원님, 박동기위원님, 이경윤위원님 여섯분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관리국 시설과장님이 건강사정으로 오늘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질의 및 답변의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순서에 따라 하시는데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후에 관계관 별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집행청 소관 국별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대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동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정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김정길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봉급을 감액하면서까지 2세 교육에 힘쓰고 계신 1만 4천여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 시상금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2위라는 놀라운 실

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55억 2천여만원의 특별시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니 더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뛰어난 업적을 거두게 된 데는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교육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어느 부서,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 평가가 전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교육기관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된 만큼 직접적으로 평가를 받느라 다른 학교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한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상응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도리이며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교육부의 평가가 실적에 따라 시상금이 배정된 만큼 수감을 받은 일선학교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 시상금을 특별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상금은 55억 2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상금 사용내역을 검토해 보니 특별 배려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선학교의 여론을 들어보면 본청으로부터 교육부평가에 대비하라는 사전예고가 시달되면 그날부터 모든 교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하지만 긴장된 가운데 몇

배의 노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평가 대상으로 사전에 지정된 학교는 이를 영광으로 여기기보다는 고생길이 시작됐다는 생각부터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4월 21일 교직사회의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과 교감을 평가하여 중임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선학교와 교직원 모두는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직원 모두는 어떠한 곳으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의식의 대전환과 분위기 쇄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 평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행·재정뿐 아니라 학사운영 등 전반에 걸친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강도 높게 계속 실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선학교가 교육부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들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평가시상금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상금 일부로 교무실에 에어컨이나 정수기를 일괄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품은 이미 갖춘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아예 시상금으로 배정해 달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교육부 평가에 대비한 일선학교의 수감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부의 평가시상금을 수감기관의 실적에 따라 포상금으로 차등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시·도 평가가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된다고 합니다.

충남, 충북, 강원, 제주가 한 권역이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부 평가에 앞서 학교운영위원대표, 학부모대표, 교장대표, 교사대표, 전문직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해서 일선학교의 애로를 청취하고 부족한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인간존중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앞장서 우리 교

[제89회-제2차]

육이 지향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특별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거나 지능이 극히 낮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내 특수학급은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86학급, 중학교 45학급, 고등학교 2학급 등 모두 135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담 교사는 135명이고 수용학생수는 모두 952명으로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7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특수학급이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학급 유자격 교사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급 유자격 교사확보는 전국 평균이 49.6%인데 비해 본도는 12.5%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이 최근 3년간 공채한 특수교사는 불과 21명에 불과합니다.

특수학급 교사는 공채로 충원할 수 있는데도 무자격 교사로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는 현재 특수교육연수를 단 한 시간도 받지 않고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무자격교사가 4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중에는 연수 60시간 미만의 자격미달 교사도 3명이나 됩니다.

이같이 특수학급을 무자격교사나 자격미달교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무자격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유자격 공채인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은 연간 0.125점의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일반 교원들이 승진의 기회로 삼는 잘못된 관행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교사들이 단국대, 전주 우석대, 대구 대학에서 30시간내지 60시간의 특수교육 연수를 받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주예성여중의 지체장애 학생인 경현선

양은 말하기를 “특수학급 학생들도 보통학생처럼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귀담아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자격교사 공채를 확대하고 특수교사 연수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특수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교육도 실제적으로 개별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불쌍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특수교사 확보 및 배치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학교의 특수학급에 학생수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 편성지침에 보면 특수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전체학생수 4백명 미만인 학교는 1학급, 4백명 이상은 학교 실정에 따라 2학급까지 편성할 수 있으며 특수학생이 5명이상인 학교는 수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학급당 5명 단위로 2학급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보르면 충북도 내에서 학생수 4백명이상 학교중 특수학생을 5명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특수학급

을 1학급만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특수학급을 편성하고 있는 총 135개 학교중 119개 학교로 88%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학교는 특수학생이 10명에서 19명이나 되는데도 1학급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1주에 4시간에서 8시간정도 수업을 하고 특수학급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사 1인당 5명이상을 지도하는 데는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수학급 편성을 1교 1학급에서 학교사정에 따라 확대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학급대상자 선정이 매우 경직되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특수학급 편성대상자는 대개가 초등학교때 판정을 받고 분류가 되어 생활기록부에 특수학급대상자라는 표시가 붙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97년에도 고등학교에 특례입학으로 79명이 진학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의 현실은 초등학교

[제89회-제2차]

에서 올라온 특수학생 이외에도 특수학급에 편성되어야 할 학생들이 일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특수학생들 조차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보니 특수학급에 편성해야 할 학생이 있어도 이들에 대해 관심을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학교수용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판정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정신지체, 정서지체, 지능지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특수학급대상자 심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특수학급대상자 선정을 탄력있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교단선진화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특수학급 교재는 초·중·고 모두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담교사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일부학생은 일반교실에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경우가 있고 학생 개개인의 차이가 심하여 이들 수준에 맞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재가 자체별, 수준별로 다양하

지 못하고 부족하여 개별화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특수학급지원비가 연간 한 학급 기준 190만원 정도로 많이 향상되어 학급운영에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장애별·수준별 다양한 시설과 교구·교재를 별도로 제작하여 특수학급에 보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이 특수학급운영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있는 모여중학교의 경우 본청에서는 특수학생이 14명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4명의 학생중에 3명은 곱하기와 나누기 셈을 할 수 있어 일반교실로 편성이 됐고 1명은 휴학중이어서 실제 학생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특수학생 교육시책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5월은 어린이 달입니다. 우리 교육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며 특히 특수학생 교육에 대해 좀더 진지한 자세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김정길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조일환 위원

교육위원 조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북교육을 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 도내 교육가족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진충북교육을 위해 교단선진화 및 교실의 현대화사업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주시고 열린교육을 통한 교육개혁의 실천은 충북교육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간 수차의 행정질의와 정기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한 우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충실히 교육현장에 반영하여 주신 따뜻한 사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의 행정질문은 3년여간 위원활동을 통해서 관심 깊게 수집한 교육현장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께 마지막 유언격의 부탁을 드리는 심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혹 욕심이 앞서서 그릇된 우문이나 오류가 있으면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불행히도 6.25사변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습니다.

6.25사변이 전란이라면 IMF 구제금융체제를 환란이라고도 합니다.

더욱이 가슴아픈 것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으며 부족한 자원이 열악한 경제 여건에서도 세계 11위의 무역국으로 발전한 원초적 원인과 공은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자 여러분의 희생적 노력의 덕분이라고 입모아 교육의 공과를 찬양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오늘의 위기를 부실한 교육의 탓으로 매도하면서 촌지고발센터를 설치하느니, 교장 교감의 평가를 학부모에게 맡기느니 하며 교육을 질타하면서 언론매체 등 공개적으로 교육불신풍토를 조성하여 교권은 이제 더 이상 추락할 여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실한 국가경영으로 경제를 망친 책임을 상투적으로 정치인들이 타인에게 책임전가하려는 부도덕한 작태가 한심스러워 안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교육자 본연의 책무수행을 위하여 조용히 우리 교육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급당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임

[제89회-제2차]

니다.

초등의 경우 교당 2,925만원 급당 168만원 운영예산을 학급수나 학급당 또는 학생수의 고려없이 동일하게 편성한 결과 별표1과 같습니다.

별표1을 설명드리면 6학급 학교의 경우 100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교당 예산, 급당예산 총 합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약 39만 3천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학급 학교에서 약 400명의 학생으로 추정했을 때에 학생 1인당 11만 5천원입니다.

20명 학급을 예상하고 800명의 학생으로 추산했을 때에 학생 1인당 예산은 7만 8천원, 30학급의 대형학교인 경우 1,200명 학생으로 추정했을 때 겨우 6만 6천원의 편성의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 6학급 100명의 학교에 1인당 학생수의 예산이 39만원, 30학급에 1,200명 학생의 경우에 6만 6천원, 무려 여섯배가 넘게 격차가 생깁니다.

또한 중등의 경우 교당예산은 학급수별 다소 차등 편성하고 있으나 학생수는 고려하지 않아서 그 결과는 초등과 비슷합니다.

학교운영상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을 밝혀주시고 또한 유치원은 독립유치원사의 원당 운영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므로 해서 일부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데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IMF 경제체제하에서의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자가 급증, 점심을 거르거나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증하여 교육부에서도 이미 일부 예산을 증액 지원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본도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까지의 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화 절화로 인한 물가상승이 12%대라는 통계이고 보며는 현재 진행중인 과학교육원, 예술고등학교, 전산공고와 같은 대형 건축비 증액이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축교사의 난방을 심야전기로 활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계에 의하면 난방은 물론 냉방도 가능하다고 전기사업을 홍보하는데 앞으로 교육기관의 난방은 계속 심야전기를 활용할 것인지 또 면밀히 검토하여 냉방도 확대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육정책 입안자나 사무처리자도 아니면서 다만 교육현장의 주도적인 수업자

입니다.

우수교사는 열성있는 능숙한 수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주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및 기술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장학인턴제” 조선일보 4월 9일자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수법을 개발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반가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면서 더욱 보완하여 인턴제 참여 교사가 신바람나게 장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방안과 도내 일반화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급경영의 편의상 자치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반장, 부반장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학용품이나 간단한 식사 등이 제공되는 부도덕한 반장선거로 동심을 멍들게 하고 간부 학부모는 학교운영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잡부금 모금을 선동한 사례는 학년초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도 내용입니다.

민주자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면 윤번제, 도우미제도를 도입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치훈련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부의 연 1회 교육개혁평가제 도입으로 일선학교에서는 평가대비 학교운영 종목별 계수화 자료 준비를 위하여 사무량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 소규모 초등학교 교감의 책상 밑에는 약 30여종에 달하는 장부의 명단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 배정이 없는 초등 4,5학급 소규모 학교는 평가대비 업무 등 과다한 사무로 수업결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년체전이 교육청별 종합 등위 시상은 학교수, 학생수의 격차 약 심한 곳은 20여배 청주시와 비교할 때 현실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는 고정 순위이고 그 이외의 순위도 경기 전에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년 우승, 만년 하위층의 고정사실이고 보며는 경기후 종합시상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아마추어 체육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소년체전의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곱째, 교장의 정기인사 시기가 9월 1일인데 3월 1일로 교사와 같은 시기여서 학년초 학교의 안정적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학교장 중심 학교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운영계획서가 3월 중순이 넘어야 수

립되고 그것도 전년도의 내용이나 형식을 참고로 수정 작성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로 교장이 부임한 학교의 경우 6개월간 교장의 교육관을 충분히 반영한 창의적인 학교운영계획서를 세울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학년초 학교운영이 쉽게 안정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미비한 교육환경과 건물의 준공검사미필로 인한 우려되는 안전사고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전기, 통신의 중간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여 보신 일이 계십니까?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장소가 불법건물이며, 안전교육에 대하여 토의하는 장소가 소방검사미필 교실인 경우 무슨 궤변의 논리로 정당함을 변명하겠습니까?

조경이나 부실한 교육 기자재는 차치하고 하루속히 안전한 건물의 개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조일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정만재 위원

정만재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교육감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충북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997년도 복교생의 현황, 재입학에 따른 문제점, 복교생중 중도탈락자의 현황 및 지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생의 재입학 제도는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복교생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교생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며, 학생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교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교생들의 지도에 만전을 기해 전원이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육용 재산매각 현황과 재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업계고교 3학년 학생의 현장실습 실시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기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실습을 접목시킴으로서 산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습기관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의 자율출퇴근제를 6개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는 동명초등학교, 관기초등학교, 괴산북중, 단양중, 보은농공고, 목도고등학교에서 자율출퇴근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자율출퇴근제에 익숙하지 않아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가모운동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대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아가모운동은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중요한 운동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가모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 과감하게 전개함으로써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영농종사자 및 영농후계자의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에 진출하고 영농에 종사할 젊은이들은 매년 그 수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잘 살으로써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을 습득한 농고 졸업생이 농촌에 많이 진출하여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농업은 보다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고 졸업생은 극소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고 졸업생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고 졸업생이 안심하고 농촌에 들어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관계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만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정만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기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교육위원, 그리고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세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을 위한 충북교육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등하교시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북공업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등과 같이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이 서청주, 가경동 등에 거주하며 등하교시에 근거리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고 대부분 시내 쪽을 경유하고 있어 시간과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하교시 학생들이 지나는 개인 승용차에 합승하고자 도로변에 나와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가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또는 승용차에 합승하기 위해서 청주쪽 자기 집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방향쪽으로 몰려오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청주외곽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타도시의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

들의 학생들 등하교시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열린교실 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교육은 어디까지나 사회전체의 관심과 협조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개선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열린교육도 이와 같은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건물 신·개축시에 열린교실 형태로 건축하고 있다고 보는데 '97년도와 '98년도 각급학교 건물 신·개축시에 열린교실의 형태로 건축된 학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열린교실 형태로 건축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열린교실 형태로 건축했을 때와 재래식 교실 건축했을 때의 경비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중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열린교실의 형태로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동기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기위원 발언대로 나옴)

● 박동기 위원

박동기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그리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우리 교육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과 교육의 질향상 그리고 교실개혁 등에는 괄목한 만큼 발전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생활지도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만큼 모든 교육관계자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는 특별한 지도방법을 개발해서 더욱

[제89회-제2차]

노력과 분발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역 일부 실업고등학교 신입생 환영회 문제 기사에 대한 진상과 근래 급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중퇴, 폭력 행위, 흡연 등 사고발생 원인과 대책,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본도 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특별지도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학생문제는 학내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중퇴 탈락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한 교내 폭력행위나 금품갈취가 빈발하고 학생들의 교내 흡연도 이제는 선생들의 단속한계를 넘어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들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환영회가 학교당국의 묵인하에 단란주점같은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열릴정도로 학생지도에 크나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고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신문에 기재되었던 제천시역에서 있었던 신입생 환영회 문제기사에 대한 진상과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중·고생의 중퇴문제와 교내 폭력행위 및 금품

갈취 그리고 흡연 등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사안별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본도 교육청이 21세기를 대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특별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98학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한 본도 교육청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98학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를 종전 시지역, 도지역으로 양분해서 실시했던 것을 인구수, 학생수, 학교수 등 행정수요와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4개 영역으로 세분해 실시하고 특히 평가로 인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실개혁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등 5개 영역의 20개 핵심과제를 15개 과제로 축소하고 금년부터 시·도 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제안한 과제를 점수에 반영키로 한다는 바 이에 대비한 본도 교육청의 계획과 추진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20개 핵심과제를 15개 과제로 축소한 내용과 본도에서 자체적인 과제 및 배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도에서도 시·군 교육청 평가에 있어서 지역여건과 현장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과제를 축소해 주거나 또는 시·군 단위 2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기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박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경윤위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경윤 위원

교육위원 이경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교육감님, 또한 자리를 함께한 동료위원과 집행청 관계직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과 인사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중 통합학교의 운영과 기대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통합형태로 새출발하는 제천의 한송과 단양의 별방초·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명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통합형태는 가능하지만 상위법에서 기본학기를 6,3,3,4제만 인정하고 있어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조면에서 이렇듯 어정쩡하니 이 학교의 경우 앞으로 교가, 교기 등을 통합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한 끝에 저에게 물어옴에 따라 다시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상당기간 초·중병설학교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달라진 점을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송초·중학교는 별방과는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방향으로 보아주실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직원 구성에서 볼 때 교감 1명과 기능직 1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교사면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승진을 하기 위해 벽지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승진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와 사정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고생 끝에 벽지학교를 찾아와 근무하던 모 교사가 벽지교를 1년 근무하고 타시·군으로 희망 이동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신규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일자 신규교사가 단양에 20명이 발령을 받아 아무 어려움 없이 벽지교에서 남자 1명, 여자 12명 합계 13명의 젊은 교사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 기대 대단히 높고 있습니다.

[제89회-제2차]

교육의 효과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과거에 없던 일이라 한 번쯤 짚고 생각하고 연구해 볼 일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얼마전 벽지학교 근무교사들이 교육감에게 벽지학교의 희망사항을 공문으로 우송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말씀 안드리기로 하고 학교운영비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형태의 학교는 독립학교 운영비의 70% 하향지급하라고 하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중등의 경우 예년보다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중학교는 분교장이 없으므로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달라진 점에 대하여 한마디로 통합한다고 하면서 교감만 1명 줄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다만, 중학교분교장 때에는 교단선진화의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도교육청이 직접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어 작년보다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정착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은 기대효과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상 한 교정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만남이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미술교사와 음악교사가 초등 5,6학년, 미술, 음악수업을 주당 4시간씩 맡아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체육교사가 초등 특기생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도 컴퓨터, 서예 등 7개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중학교 교사들이 가담해서 15개로 늘어났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과는 좀더 두고 볼일이겠습니다만은 이와 함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소풍, 직원체육 등 교내 행사를 일원화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통합 운영하게 돼 업무분산에 따른 부담 경감효과도 상당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12개교가 6개교로 통합형태가 되었는데 유독 우리 도의 2개 통합교만이 1교장 1교감 체제로 구성되었고, 전북의 경우는 4개 통합교에 교장2, 교감2 체제이고 경북 2개교, 제주 1개교 통합교는 교장1에 교감2 체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와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의 운영형태가 판이한데 교감을 1명으로 하여 관리자로서의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

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에서 교감직 축소는 교사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통합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만 손질하고 상위법의 관련조항 검토가 미흡한 점과 통합학교 운영의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했듯이 9년제 학교의 등장이라는 과대 홍보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일각에서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가 앞으로 교육계의 기대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에 대한 보강과 적극적인 예산상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가모운동의 성과와 경제교육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정만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도교육청이 쓰레기 절감운동인 아가모운동을 특수시책으로 펴고있는 점 대단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

선학교와 학급에 아가모 환경교육관을 설치하고 7월에는 이 운동을 주제로 글짓기, 그리기,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가진다고 하니 더더욱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티커를 제작 가정과 학생에게 배부해 출입문과 교과서에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사랑의 주머니를 만들어 소풍, 현장견학, 환경보존 행사 등에 활용한다고 하니 더더욱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제교육 측면에서 한가지 더 아쉬운 일이 있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초·중등 학교에서는 재활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재활용 가능한 책을 헐값으로 폐품처리 하는 등 교과서 사용에 대한 경제교육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IMF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교과서의 수량을 줄이고 일정수의 아동들이 헌교과서를 재활용하는 대신 재활용만큼의 새책값을 학교운영비로 학교에 배부하여 사용케 한다면 학교에서는 옛날처럼 교과서를 아끼기 위해 책표지를 싸게 하는 등 적극적인 절약운동 교육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시절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들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가슴아픈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부모가 실직해 졸업생 중에 앨범값을 못 내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점심을 거르는 어린이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IMF 시대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항상 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도 절약, 둘째도 절약,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위해 교과서는 아끼고 깨끗이 쓰게 해야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다시 쓰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간혹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반대방향으로 유도 교육하는 현장의 문제교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교육감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오지소재학교 근무 교장의 인사상 우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군을 지정하여 오지군 소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교감에게는 전보상 가산점을 부여하여 조금이나마 전보에 혜택을 주고 있음은 교사, 교감의 사기진작과 오지군 학생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지군 소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에게는 밤낮으로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 교직원과 더불어 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오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장보다도 전보상 우대하여 주는 제도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장은 능력 및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는 것과 오지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은 순위 명부에 의하여 발령을 받다보니 오지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본인들 스스로 여건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군 학교의 교장과 오지군 소재 학교가 아닌 학교장을 같이 보고 전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장의 전보시 오지군 소재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을 우대하여 줄 수 있는 우대 조항을 만들어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학습자료구입비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학년도 초등학교에서는 기본학습 용구 및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교구 등을 제외한 학습자료는 학교에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면 먼저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이 현재의 학교운영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어 학생수가 적은 학교보다도 학생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 학습자료의 구입과 처리에 따르는 업무도 감사를 의식한 나머지 복잡하게 처리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고 교수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습자료구입에 따르는 예산지원과 학습자료구입 및 처리과정의 간소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단선진화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99년 4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97년도까지 대다수의 학교가 교단선진화의 기반이 조성되어 그야말로 선진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현 김영세교육감의 괄목할만한 업적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각 학교에 시달한 교단선진화에 투입할 예산을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에 교당 60만원, 급당 28만 2천원, 멀티미디어 기자재 지원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에 학급당 300만원,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급당 35만원을 영어학습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한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초등학교 영어학습 기자재 구입비만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 즉 교단선진화 및 멀티미디어 기자재 지원금은 일선학교에 배부하거나 교육청에서의 일괄 입찰 등 어떤 방법으로도 실행이 시작되어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97년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야기가 높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우리 교육이 문을 딱 닫고 닫힌 교육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은 대문을 확 열어놓고 하는 교육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분명 열린수업은 시대적 요청이고 교원의 자생적 운동으로 일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 중의 일부라고 알고 있으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원의 의식전환 없이는 교육전문가로서 안주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열린교육을 행정적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현장교사의 동참이 있어 학교 분위기가 화합적이고 협동적이면서 동시에 건설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풍은 학교장의 리더십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며 또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습지의 난발로 인한 질의 저하, 학습결과 확인의 어려움, 개별화, 개별학습의 혼동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생명은 수업이라고 하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서툰 의사는 순간적으로 환자를 죽일 수도 있고 서툰 교사는 학습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율의 덫에서 벗어나 교단에서만 몰두하도록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열심히 가르치는 풍토조성이 열린교육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육의 열린 교육 및 인성교육 시범단지운영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수

이경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모두가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교육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서 있었던 행정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도에서는 아가모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근검절약하는 정신과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실천의지의 인성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

서도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토록하여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정부방침에 동참하기 위하여 전교직원들의 급여인상예정분을 반납하고 본인의 급여인 교육감 급여 20%와 전 공무원의 급여를 10%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발전의 비전(VISION)이 교육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IMF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충북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시는 뜻으로 보고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부 평가에 대비한 일선학교의 수감 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며 평가시상금을 수감기관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용의

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로 인하여 교원들이 업무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시·도평가에 기여한 우수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IMF 한파로 취소된 바가 있고 교육감의 표창수여 및 격려서한문의 발송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무실 환경개선 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교육가족이 교육부평가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현실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실수업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도록 의식전환과 분위기 쇄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평가는 일부 교육기관만이 아닌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기관중 단위학교의 실적이 전체 배점의 24%에 달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전국 2위의 우수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방문학교 20개교에 대하여는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일반학교에 비하여 300만원씩을 더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년도 방문 대상학교 40여개 학교에도 6억원을 가지고서 차등 지원하여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평가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교장대표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문학교를 사전평가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문학교에 대한 사전 평가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뒤따름을 말씀드립니다.

'97년의 예로 봐서 교육부가 방문 2주 전에 2내지 5배수의 대상학교를 추천받아 약 1주 전에 방문학교를 결정함으로써 어느 학교가 방문 대상학교로 선정될 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급년도에도 방문학교를 예년과 같이 시·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지 아니면 추천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임의 선정할지조차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방문학교에 대한 사전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린교육, 수준별 수업,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정보화 등 각 영역별 방문 대상학교를 잠정적으로 선정하여 장학지도시에 또는 해당 과에 합동 지도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분야를 지도 점검하는 형태로 사전 평가에 갈음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장 인사 시기를 8월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의 인사를 9월 1일자로 실시하면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견해에 뜻을 같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학교 설폐 등의 보충요인이 발생하여 3월 1일자의 인사 발령되는 경우를 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장은 국가직으로 교육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의 발령을 받게 됨으로 교육감의 의지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하신 교원의 자율출퇴근제를 6개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자율출퇴근제의 권장은 교육개혁의 과제로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능력을 극대화하자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6년 9월부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6개 학교에 시범 실시하였고 그 장단점을 검토한 후 1998년에는 12개교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등하교 시간 조절로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용하게 연계할 수 있어 보람찬 학습시간, 독서시간, 특활 시간 확보 등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며 교원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컴퓨터, 외국어 수강 등 자기 연찬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자율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교원의 자긍심 고양으로 교직원의 사기양양에 이바지 하며 효율적인 시간운영으로 교재 준비 및 분담 업무추진이 원활하여 교육효과 거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관리자의 복무관리 및 교직원 상호간의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협의, 행사추진 등의 전직원 활동이 필요할 때 전체 협의시간 마련이 어렵고 여직원의 경우 조기출근 등의 시간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 제도의 약점이 된다고 하겠으며 지역의 교통수단이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시간상의 문제들로 해서 시범실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교, 초등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지역실태, 교통수단 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중심 학교운영을 전제로 하고 자율적인 협동체제 육성과 교직원의 자기관리 능력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범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건물 신·개축시 열린교육 형태로의 건축여부와 그 사유 및 예산상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실 형태로 건축된 학교는 청원교육

청산하 옥산중학교 외 12개 학교이며, 열린교실로 건축하지 않는 학교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원봉초등학교 외 4개교는 도시학교, 지역특성인 과대학급 및 학생수로 인하여 열린교실 배치의 난점이 있으며 열린교육시설의 평면구조상 학습분위기의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열린교실 형태를 참작하여 저·중·고학년을 층별로 배치하고 평면구성을 단순화 하였으며 특별교실의 집중화 등을 통하여 열린교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하였고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교인 제천 한성초등학교와 단양 대가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급당 인원이 적어 농촌형으로 설계하여 열린교실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열린교실로 건축할 때에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교실당 약 300여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는 난방시설과 복도공간 확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앞으로 신·개축시 도시지역의 과대학급인 경우 저·중·고학년을 층별로 배치하여 평면구성을 단순화하고 특별교실 집중화를 통한 열린학습을 위하여 일부 교실에 이동식 격랑 칸막이를 설치하고 복도의 활용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며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 등을 감안하여 열린교실 형태로 건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89회-제2차]

다음은 박동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평가과제중 금년에는 교육복지분야인 유아교육, 특수교육 및 초등 영어교육, 그리고 보충자율학습 운영, 교육개혁 홍보 활동 등이 제외되었으나 이는 '99년 평가에는 다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년에 새로 채택된 평가항목 내용은 주로 새정부의 정책의지 구현사업으로서 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부실 및 낭비 제거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체 제안과제,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노력, 시·도교육청의 구조와 기능 혁신 등으로써 전년도 20개 과제에서 15개 과제로 축소되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교육재정과 시설사업 부분의 배점이 500점 만점중 130점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과 새로 추가된 자체 제안과제의 배점은 30점으로 이는 타시·도에 보급할 가치가 있고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서 3개 이내의 추진사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색사업중 제출과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새로운 평가과제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의 평가항목 축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과제 수가

줄어듬에 따라 지역교육청 평가항목도 축소될 전망이며 금번 시·도평가지 제출하는 지역교육청의 평가내용을 지역교육청 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시·도평가와 지역교육청 평가를 상호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나 16개 시·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여건이 상이한 시지역 교육청과 군지역 교육청을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도의 경우 시와 군의 수가 3대9라는 불균형의 문제와 충주와 제천교육청은 청주교육청과는 달리 통합 시·군이라는 여건 차이로 권역별 구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소지학교 근무 교장의 인사상 우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소지학교의 인사상 우대라 함은 오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이 일정기간 근무후 희망지로 전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초등교장 268명중 164명, 61.2%에 해당하는 인원이 생활근거지에 근무하고 있고 38.8%인 104명은 생활근거지를 떠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청주, 충주, 제천 등의 도시집중 현상이기 때문에

생활근거지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장 전원을 전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청주의 경우 도내 초등학교의 14.9%의 40개교가 소지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장선생님은 훨씬 많기 때문에 일시에 희망대로의 전보는 사실상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초등학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초임교장 승진임용시 청주시 배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교장선생님들은 동규정 7조2항 전보규정에 의거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써 단양, 영동 등 오지 원격지에 근무한 교장, 교감선생님들도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에 따라 희망지역 학교에 직접 전보함은 물론 특히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한 교장에 대하여는 발탁인사도 병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터 하실까요?

(초등교육국장 “예”하고 말함)

초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초등교육국장 민병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 교육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특수교사를 공채로 충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특수교사 확보 및 배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수학급을 담당할 교사를 자격소지자나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담당하여야 함에도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격소지자로 충당하지 못한 이유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 현장에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와 또는 6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자가 상당수 있으나 대부분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연한이상의 특수교육에 종사를 하였고 또 연구시범학교나 농진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특수학급 담당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도의 경우 학급수가 감소현상을 가져오는 관계로 해서 특수교사를 대폭 공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직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이 이제까지 우리 인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체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가지려고 시도해 본 바도 있습니다만은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졸업생들이 저지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 현 상태로는 충원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98년부터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특수교육 대학원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가급적이면 자격증 소지자나 60시간이상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교원 수급전망을 미리 검토해서 공채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유인가를 높이는 방안과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학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및 대상자 선정의 탄력적 운영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학급 대상자 심사위원회는 '97년 12월 13일로 그 명칭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그 역할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학교배치,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써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의 입급 대상자 결정은 중학교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도교육청에 구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신청한 학생들의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를 기초진단 자료와 전문의사의 진단을 참고하여 심의 결정하고 특수교육을 실시할 학교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학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또 지정기관의 의사의 진단서나 장애인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나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법규정으로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동의서

와 지정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학교 및 장애학생의 학부모의 애로점을 감안해서 교육부에 법개정을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으로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장애별, 수준별 다양한 시설, 교구 교재를 별도로 제작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별, 수준별 차이는 너무 다양하고 그 개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시설 교구는 장애별로 특단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반면 종류별로 소요량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도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제작 보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학급은 특수학생들이 장애와 학습수준에 맞는 시설과 교구구입 및 제작을 위한 경비를 학교별로 지원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재량으로 구입 또는 제작하게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특수학급 교단선진화 경비로 학급당 300만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특수교육 교단선진화 지원 차원에서 '97년에는 수학과 개별화 교육을 위한 CD자료 1종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5종의 개별화 교육용 CD자료를 제작 보급해 주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타도에 비해서 깊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전국 최초로 '97년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했습니다.

'98년에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전국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의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97년에는 중학교, '98년에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선진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우수교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참고로 올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천여중 특수학급 학생현황 파악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학급구성 당시 인원이 현재와 차이가 있는 그 이유는 원적 학급으로의 환원조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생수가 줄어든 상황을 일찍이 파악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시로 이동 사항을 파악을 해서 특수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관심을 표해 주신 김정길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

[제89회-제2차]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학생제도 개선으로 도우미 제도를 윤번제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반장, 부반장 제도는 초등학교에는 반장, 부반장을 한두명이 1년간 계속하던 것을 지양하고 반장, 부반장의 역할을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봉사 또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1일 반장, 또는 1주일 반장 제도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윤번제 반장, 부반장 제도가 일반화 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 및 기술개발 향상을 위하여 장학인턴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지난 4월 9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 이를 일반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데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인턴제 실시에 관해서는 충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수업기술이 우수하고 연구실적이 많은 교원을 장학교원으로 선정해서 교사들의 수업연구를 도와주고 장학활동을 지원하며 애로점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상호 협동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에

서는 형태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수업기술이 우수한 교원들로 하여금 수업지원단 및 장학요원을 조직하여 각종 시범학교 및 열린교육실천 우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교사의 수업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책을 더욱 연구 보완해서 교실수업의 질적 혁신에 기여하도록 도교육청의 열린교육수업 지원단과 함께 장학요원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연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사교육비가 중등보다 초등 및 유치원 취학전 유아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절감 또는 근절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상황과 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및 취학전 유아들의 부담이 과중한 까닭에 관하여는 조기교육의 열기에 따라서 예능계를 선호하며 소수 개인지도를 받고있는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교습비가 고액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어린이들의 방과후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학원예를 한곳, 두곳, 또는 세곳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이 다니니까 내 아이도 보내야 하겠다는 그런 경쟁심도 자극해서 참여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내에서 자율학습

또는 보충수업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저희도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8학년도 교내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은 초등이 6만 천여명, 중학교가 5만 3천여명, 고등학교가 6만여명이 되며 절약되는 사교육비는 월 약 50억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약방안으로는 자원인사 또는 분야의 전문강사를 다수 확보해서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교내 방과후 활동으로 더 많이 흡수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 대규모 학교에서는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또는 영어교실을 유치해서 교내 방과후 활동을 프로그램을 역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학부모에게 일부 과목의 학원과외 그 효과성을 진단해 보게 한다든지 과열 과외에 대한 인식전환 등에 관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부에서 금년에 1차로 우리 도에 5,6천만원을 방과후 교육활동비로 지원을 하도록 최근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현장에 투입을 해서 보다 다양한 프

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해 주신 매년 1회 교육평가제 도입으로 평가대비 사무량이 증가하여 소규모 학교의 수업결손이 우려되는바 그 해소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3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1조제3항에 따라서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종합하는 평가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소규모학교의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규모의 대중소 3단계로 나누어서 차등평가로 학교규모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평가는 학교자체 평가와 현장 중심의 실적에 의해 평가되므로 별도로 공문서 처리나 실적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1차 평가결과 30%의 범위내에 학교만 2차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와 대다수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 실시방안까지 계속 연구 분석하여 학교의 수업결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 한가지 소규모학교 4학급, 5학급의 경우 서무인력 배치에 관한 말씀이

[제89회-제2차]

계셨는데 이 또한 교육부의 표준정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조정지침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6학급이하의 학교에도 사무직원 배치를 검토하여 수업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내용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본도 교육시책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장학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아가모운동의 효과와 경제교육 차원의 대책에 관해서 이경운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질문해 주셔서 이경운위원님의 질문 내용중 아가모운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벌이고 있는 아가모운동은 교육부 모범사례로 채택된 바도 있으며 '97년부터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환경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운동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가모운동은 아끼고, 가르고, 모으자는 운동으로 아끼기의 필수과제로는 음식물 안남기기, 가르기의 분리수거함을 설치 활용하기, 모으자의 필수 과제로는 폐자원 가져와서 모으자는 그런 운동으로 직접 실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조기정착내지 활성화를

위해서 스티커 70만장을 제작 각급학교에 배포하였고 분리수거함은 자원재생공사와 한국통신의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250개를 제작 분배하였고 각급학교에서도 필요량을 자체 제작하여 현재까지 약 7,500개정도가 자체구입 또는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되가져 오기를 하기 위하여는 썩을 3만 개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분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모운동의 조기 확산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은 아가모 나의주장 발표회, 그리기, 글짓기 등 행사 교육과 아가모 운동의 캠페인을 거두적으로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97년 12월 말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총 93만 6천kg으로 매상가격은 4,392만 5천 원이 되며 교과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참고로 '97학년도에 수집한 교과서는 23만 4천여 권으로 약 2억원이 절감되었으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절약된 예산은 전액 학교교육비로 환원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학년도 1,4분기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말씀드리면 42만 6천kg으로 매상가격은 약 2,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며 이는 '97년 실적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각급학교별로 알뜰시장을 개장하여 의류, 장난감, 도서 등을 교환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제활용하고 불우학생 돕기에도 활용토록 하겠으며 구제금융시대의 국민적 극복 노력에 교직원이 솔선하고 학생들이 동참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경제교육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자로 경제교육 세부계획을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시달해서 각급학교에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실천의식 고취와 실천 의지의 근검절약 생활의 일상화, 폐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 생활용품의 교환활용, 수집품의 효율적 활용 등에 걸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전개해온 아가모운동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경운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초등학교 학습자료 구입비 지원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학생 준비물을 공교육비에서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거양하고 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1만 2천원정도 책정되고 있어 그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

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지침에 의거 실시되는 바 학교규모에 따라서는 학교재정상 어려움이 커서 특별 재원보조 또는 차선책으로 예산절감 10%중 학교에 교당경비와 급당경비만은 그 절감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용구 구입비로 전환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교육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특별히 지원할 대책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등은 최대한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료 구입 및 처리과정의 간소화 방안에 관해서는 저희 도에서 일선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료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무엇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과별, 단원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일선에 제시하면서 업무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는 교급당경비 집행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특별한 간소화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교단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

[제89회-제2차]

창한 바 있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제 일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96년에 99억원과 '97년에 130억원 등 2년간 총 2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첨단 기교재를 확보함으로써 초등 3,4학년 교실과 중·고등학교 1학년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실 현대화를 이룩하자고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고등학교 2학년 및 일부 특수 학교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교실의 환경을 멀티미디어 교실로 개선하여 교실의 현대화가 가시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2일에 통과되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집행이 유보된 교육부의 지원되는 멀티미디어 교실 조성지침이 조만간 확정되어서 시달된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단가입찰 과정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교재가 교실현장까지 납부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단가입찰에서 절약되는 30억원정도의 예산은 교단선진화를 위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울러 올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열린교육 및 인성교육 시범단지 운영의 목적과 운영내용

과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 해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지정 운영하는 목적은 초·중등 교원의 공동연수, 공개수업 참관, 학습교수 자료의 공유체제 구축, 열린교육 자문위원을 함께 구성하는 등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및 학교간의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초등학교에서 하루속히 전개되고 있는 열린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1개의 지역교육청 모두를 시범단지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부 지정 시범단지로는 청원교육청 우리 교육청 시범단지로는 충주, 진천교육청 그외 8개 지역교육청은 자율시범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초·중등의 본도 교육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교육이 상호 보완돼서 초·중등 수업방법이 혁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시범단지는 역시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가정 및 지역사회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음성교육청을 전국 최초의 시범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음성교육청에서는 관내 9개 지역에
각급학교에 지역대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장, 음성군 협의회 및 군청지역 협의회 청
년단체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체제를
갖추어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위주의 인성교육을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해서 함께 좋은 교육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단지 운영에 어려운 점은
시설문제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교단선진
화 4개년계획을 열린교육과 관련해서 추진
하면 즐거운 학습을 할 수 있고 즐거운 학
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이므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단지운영을 위해서는 역시 학
교장을 필두로 교사의 인식전환과 수용자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연수활
동을 통해서 교육개혁의 공감대를 같이하고
공지와 사명을 갖는 교원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와 선진 열린교육의 성숙의 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중등교육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MF 경
제체제에 따른 급격한 실업사태로 점심을
거르는 학생의 급증에 대한 급식비 지원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부모가 실직함에 따라 점
심을 굶고 오후 수업을 계속하는 결식학생
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중식을 지원하
여 결핍된 생활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학
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89개 학교 670명의 학생에 대하여 국고 1억
3,316만 2천원, 교육비특별회계 1억 50만
원, 합계 2억 3,36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결식학생의 중식지원
대책으로 각종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결연
사업, 도시락 후원운동 전개, 구좌개설을
통한 모금지원, 급우돕기 등 학교실정에 맞
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식비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급식학교는 상부상조에 의한 자체
급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89회-제2차]

다음 충북소년체육대회 교육청별 종합성적 등위시상은 교육청별 학교, 학생수의 큰 격차의 현실에서 교육적 결과처리 차원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 개최목적은 기초적인 스포츠를 보급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교육청별 종합성적 등위는 부득이 행정구역상 지역교육청별로 참가하여 대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결속력과 단결력을 기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서울, 경기도와 같이 큰 시·도나 충북, 제주도와 같이 인구수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면서도 함께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소년체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현재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메달 집계로 결과처리를 한다 하여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교육청 순으로의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종합성적 등위시상을 올림픽 대회와 같은 메달순으로 한다든지 신기록 수립자에게는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든가 종목별 등위만 시상하고 종합등위는 폐지한다든가 교육적으로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7학년도 복교생 현황, 재입학에 따른 문제점, 복교생 중 중도탈락자의 현황 및 지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교생 및 재탈락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복교생은 중학생이 319명이고 고등학생이 349명으로 합계 668명이며 '98학년도 2월, 3월에 걸쳐 특별교육기관을 설정 운영한 결과 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266명 계 379명이 재입학 하였습니다.

복교생중 '97학년도 재탈락자는 중학생이 86명으로 복교생의 27%에 달하며 고등학생은 102명으로 복교생의 29%입니다만은 전국 평균 재탈락율 40%에 비하면 본도에서는 재탈락자 상담 등 예방지도에 상당한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입학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재입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수시 무단결석, 지각, 조퇴의 반복등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동급생 후배에게 경어 사용 강요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타교생과의 폭력문제 야기, 동급생 하급생 구타, 음주, 흡연, 불량 이성교재 등으로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타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자기 자식의 탈선행위를 정당화 하는 등 학부모의 과잉보호와 피해신고 기피현상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및 생활지도 중점착안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각학교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2담임의 생활담임제 운영 및 개별상담지도, 심성훈련 등을 실시하여 동급생, 상하급생간 상호 인격존중, 폭력써클 재발방지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교장, 교감, 학생부장, 진로상담부장 등 간부교사 및 중견교사와 1교사 1학생 결연지도와 교사와 함께하는 교내외 봉사활동, 복교생을 대상으로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을 심성수련기관으로 위촉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심성수련 등으로 자아정체감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특성화 학교인 양업고등학교를 '98년 3월 28일 설립 개교하여 1학년 4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여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꿈과 용기를 되찾게 하여 내일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중도탈락생 구제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양업고등학교에 우리 도내 타고등학교 학생중 생활부적응 학생 선도를 위한 단

기적응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중도탈락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 학교에 전·편입학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원적교로 재편입학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중도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처지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끈기있는 지속적인 지도만이 대책의 최우선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학교와 가정과 사회 모두가 부적응 학생에 대한 비판이나 폭로성 질책보다는 개성을 살려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갈 때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인 '97년도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생의 현장실습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이수현황 중 계열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계열 학생의 현장실습은 재적 1,214명 전원이 이수하였고 공업계 계열은 5,249명중 5,231명으로 99.7%가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으며 상업계열은 4,759명중 3,827명으로 80.4%의 다소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상업계열 현장실습 대상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으로 IMF 체제하의 경제한파로 인하여 기업체의 구조조정, 도산 등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수용업체 감소와 현장실습생 수용기피 현상인 것으로 사료되며 '98학년도

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전계열이 현장실습이 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업체의 지속적인 발굴 및 업체와의 유대강화에 노력 하겠으며 향후 미이수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학교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실험 실습에 대한 심화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걸친 농업종사자 및 영농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간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중 영농종사자와 후계자는 '95년도에 영농종사자 88명, 후계자 16명, 계 104명이며, '96년도에는 영농종사자 98명, 후계자 12명, 계 117명이고 '97년도에는 영농종사자 53명, 후계자 14명, 계 67명으로 '96년도 이후 영농종사자 및 후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 3,478명중 영농종사자 239명, 후계자 42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총 종사자는 총 졸업생의 8%인 281명에 불과하나 이는 최근 농업고등학교 교육이 중학교교육에 탈피하여 농업교육의 심화를 위한 계속 교육기회 확대와 농업계 고교의 관련학과로의 개편에 따른 진학

및 취업희망자의 증가로 농업종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영농자 영자의 양성을 위하여 6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생산계열학과 13개 학급의 유지를 위하여 비생산 학과로의 학과개편은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며, 또한 영농 정착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영농교육 및 직업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공고, 세광고등학교 등과 같이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등하교시 버스노선 불합리 등 대중교통 이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절실한 현안문제로 해결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공고, 세광고등학교는 도심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이 등하교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매우 그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충북공고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종점으로 하루에 6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노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목적지와 다른 구간을 우회하여 필요이상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광고의 경우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

는 버스는 하루에 300여대가 되고 등하교시
간에는 3분에서 5분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시내 전역으로 우회 운행하는 관계로 시간
을 낭비하게 되는 사정은 충북공고와 마찬
가지 형편이며 오후 6시이후 지역에 따라서
는 버스운행이 중단되거나 운행횟수가 감소
되는 노선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설립이래 매년 수차
례씩 시당국에 건의를 했으나 모든 학교가
같은 시간대에 등하교를 하는 관계로 그 학
교만 집중 운행할 수 있는 버스의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학생들 노선에 맞도록 운행을 한다면 경제
적인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기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북공고와 세광고의 경우 하교시 도로변에
서 개인 승용차를 탑승하려는 학생들이 있
어 수차례에 걸쳐 학교에 학생 단속지도를
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학교뿐만 아니라 시내 많은 학교
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 대중교통수단을 이
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교통관계 부서와 교통문제 개선방안을 긴밀
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
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차제에 교육위원님께서도 교통관계 행
정당국에 협조요청하셔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야기되는 교통문제 해결에 보다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
지역 일부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 환영회
사건에 대한 진상과 폭력행위, 금품갈취,
흡연 등이 급증하는 원인과 대책,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본도 교육청의 생활지도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지역 일부 실업계고등학교 신입
생 환영회 사건에 대한 진상을 말씀드리면
제천상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98년 4월 3
일자 충청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담당교
사의 묵인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되었으나
조사하여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져 해당 학교장이 관계 언론사에 항의 사과
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천상고 사무자동화학과 30
명의 학생이 '98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와
경영정보과 45명이 개교기념일인 3월 10일
에 학교에 알리지 않고 3학년 학생들이 임
의로 학생들을 모아 제천시 청전동 소재 한
라부페에서 1인당 천원에서 만원까지의 회
비를 모아 식사를 한후 헤어졌으나 경영정
보과의 일부 학생들이 노래방을 출입한 사
실이 있었으며 음주, 폭행 등과 같은 불미
스러운 일은 조사결과 없었던 것으로 현재

[제89회-제2차]

알고 있습니다.

그후 학교장과 검찰과의 대화에서 이것은 검찰지청장님이 특강을 하러 오신 대화에서 이 사실이 검찰에 고지되고 학생을 출입시킨 노래방, 그 노래하는 집 커플 TWO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등 4개 업체에서 5명이 검찰에 구속되고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출입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교내 봉사 등의 지도를 하였고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징구하고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행사에는 반드시 지도교사가 입회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을 구안,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폭력행위, 금품갈취, 흡연 등이 급증하는 원인은 결손가정, 애정결핍, 부모의 과잉기대 또는 무관심 등 가정의 교육기능의 약화와 성적부진에서 오는 강박관념, 최근 경제적인 문제, 이성문제 뿐만 아니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회풍토에서 영향을 받은 큰 반면 사회적 무관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도록 각급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교과 연계교육은 물론 특별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탈락 복교생이나 부적응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위촉하여 심성수련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성과 다짐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는 일류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간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화 교육을 위하여 특별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에서 유기적으로 정서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 협동성 함양교육 등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세계 속의 한국을 선양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윤리교육을 위하여 예절실교육, 효경의 날 운영 등 한국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학생 개개인의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퇴폐문화를 일소하는 우리 한국적 윤리와 문화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 사회가 합심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청소년 정립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입니다만은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의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급을 학교 사정에 따라 확대 편성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 제57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학생수 800명이상인 학교는 2학급이상, 학생수 400명에서 800명미만인 학교는 1학급이상, 그외 학생수 400명미만일지라도 설치가 요구되는 학교에는 1학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특수학급 편성기준은

학급당 학생수를 최저 5명으로 하여 5명이상 최고 15명을 기준으로 1학급으로 하고 16명이상 30명이하인 경우 2학급으로 하는 등 학생수에 따라 특수학급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수가 교당 16명이상이 되면 확대 편성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당 급당경비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학교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농촌지역 학교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교급당 경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과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과의 학생당 경비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교단 선진화 사업비를 교당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이고 급당경비를 21만 4천원에서 28만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학급수가 많은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의 지원액을 늘려서 학교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학교운영비 지원시 학생당 경비를 고려하여 급당 인원이 많은 대규모 학교와 급당 인원이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독립유치원사의 원당 경비를 지

[제89회-제2차]

<p>원하지 않아 일부 초등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에는 독립원사를 소유하고 있는 유치원은 모두 31개원입니다만 독립원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원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의 일부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당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급당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p> <p>유치원에는 급당경비를 초등학교 168만원보다 많은 18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난방개선비, 교재 교구구입비 등 목적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p>다음은 IMF경제체제 이후 실업자 급증으로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실직자 자녀를 위하여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을 학기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변경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게 하였으며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을 실직자 자녀에게도 우선토록 하였고 또한 외부 장학금이나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영비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 학비에로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p>	<p>1,4분기중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학비감면은 583명으로, 그리고 149명에게 외부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다음은 현재 건축중인 과학교육원, 예술고등학교, 전산공고의 건축비 증액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현재 우리 도교육청 관내 이월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설공사는 과학교육원, 예술고, 전산공고의 시설사업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단가인상 및 풍기현상을 우려하여 '97년 말까지 관급 자재로 구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p> <p>또한 관급자재 외 기타 시설자재 값도 많이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p> <p>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1항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시공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구가 없었습니다.</p> <p>현재까지 예술고나 전산공고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과학교육원은 '97년 11월 10일 지하 흑막이 공사중 공사장 주변에 민가 피해가 발생하고 '98년 1월 3일 시공사 부도 및 보증회사 부도로 당초 공정보다 약 2개월정도 지연되고 있으나 다행히 청주의 보성건설이 시공회사로 선정되어 '98년 3월 25일부터 재착공하였고 피해</p>
--	--

주민과도 원만한 협의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수가 너무 많고 토질이 몹시 불량하여 시멘트 차수벽 흑막이와 지반고 조정 등의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가 2억 4,600만원이 증가된 총 130억 8,200만원의 공사로 공사기간도 당초보다 30일이 연장된 '99년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감독 및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교사 심야전기 난방을 계속할 것인지 또한 냉방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시설의 냉난방 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학교시설이 에너지 최적화 방안 연구를 에너지 관리공단 외 2개 기관을 주관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충북고등학교의 경우 '97년도에 충열식 심야온풍기를 설치하여 난방을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야전기를 활용한 냉방방식은 먼저 중앙공급식 냉난방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며 기계실에 대형 축열조 보조 냉동기 등이 시설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설비가 크게 소요

되어서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설교의 소방검사를 미필한 상태에서 개교하게 된 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신설 개교된 학교는 6개교입니다.

이중 2개교는 모든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후 개교하였으며 나머지 학교중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개교일 이후 2일에서 7일까지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공기부족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되어 교육부에서 전국 각시·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종전의 22개월 전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을 30개월 전으로 조정하여 예산반영이 빨리 되기 때문에 2001학년도부터는 신설학교의 공사기간 확보로 개교이전에 모든 부분 공사가 완료된 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와 '97년도 교육재산 매각현황 및 투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육재산 매각현황은 청주농고 도로편입용지 보상 외 82건에 71억 1,600만

[제89회-제2차]

원으로 이중 68억 8,300만원을 재산 형성비로 재투자하였고 2억 3,2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여 음성, 삼성초등학교 독립유치원사 건립에 재투자하였으며 '97년도 교육재산 매각현황은 음성군 도로편입용지 보상외 85건에 59억 7,700만원으로 전액 재산형성비로 재투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교재산의 매각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임대 등 자체 활용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통합학교 운영의 교가, 교기 통합가능 여부, 학교운영비가 독립교보다 70% 하향지급한다는 내용, 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업무부담과중, 1교장 1교감 체제 운영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교원과 시설설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도에서는 '98년 3월 1일자 제천시역에 1개소, 단양지역에 1개소 등 2개소에 통합운영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설치사유를 보면 제천시역은 초등학교 모두 향후 통합 대상학교로서 지역문화의 구심점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단양지역은 동일구역내 동일군에 초등학교

와 중학교 분교장이 위치한 것으로 초·중교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교가, 교기의 통합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면 초·중학교의 통합운영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기 설치 운영됨으로 교명, 교가, 교기로 학교별로 구분함이 원칙이나 운영면에 있어서는 편의상 교가, 교기를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가 독립교보다 70% 하향 지급으로 대폭 증액지원 희망에 대하여 통합되기 전 별방초등학교는 단설교로서 교당경비 100%, 별방중은 분교장으로 단설교 교당경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통합학교는 학교 공통경비의 비율이 단설교보다 낮아 학교운영의 여건이 좋은 편이므로 단설교와의 형평성 유지 및 합리적인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교당경비를 단설교의 140%로 조정 지원토록 하였고, 참고로 초·중통합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비를 단양지역은 같은 구내 학교로 500만원, 제천시역은 각각의 학교를 통합하므로 1,000만원을 또한 별방중학교는 본교 승격으로 인하여 교재 교구 확충이 요구되어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로 인한

업무부담 과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통합 운영학교는 교과과정 운영이나 특별활동에 있어 소지자격에 따라 상호 겸임할 수 있으므로 일부 겸임 교사의 수업 부담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주당 시수로 보아 수업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합운영시는 많은 교무업무를 급별 구분없이 분담하게 되어 통합운영 전보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교장 1교감 체제의 이유와 원인은 통합운영학교의 교장, 교감 배치는 기본 원칙이 1교장 1교감 체제입니다.

물론 따로 둘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통합학교의 기본설치 목적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와 시설, 인원, 예산의 통합으로 볼 때 1교장 1교감 체제가 통합학교 운영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2교장 2교감 체제 및 1교장 2교감 체제는 통합운영학교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1교장 1교감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청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의석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없습니다.”하고 말함)

● 의장 김광수

조일환위원님?

● 조일환 위원

그럼 저도 앉아서.....

● 의장 김광수

예 앉아서 그 좌석에서 해 주십시오.

● 조일환 위원

오늘 마침 5월 8일 모두 우리 집행청이나 저희들이 모두 아버지의 경사스러운 날인데 혹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 자신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전혀 앞서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충복교육을 걱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교장의 정기인사가 9월달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통령의 발령, 또는 정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원이 대개 교육감님 언제 확정이 됩니까?

● **교육감 김영세**

정원이라는 것이 확정되기는 이게 11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말하자면 정년이나 명퇴 이런 결원이 생겼을 때 말고라도 되도록 학교장이 미리 그 학교의 실태를 알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실제 일선학교에 가보면 특히 교장선생님이 바뀔 경우 3월, 4월은 좀 심하게 말하면 계획을 세우다 끝납니다.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외의 학교장이 좀 미리 9월 1일자로 발령되는 것이 교육현장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좀더 확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여기에 답변드리죠.

본인은 인사이동 뿐만 아니라 학년제도

9월 1일 학년제가 돼야 된다고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세계화 시대에 지금 3월 내지 4월 학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하고 일본뿐입니다.

전세계가 9월 1일 학년제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외국유학을 가더라도 반년은 놀게 됩니다 학년이 맞지 않아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학년제도 9월 1일자로 바뀌야 옳다 본인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육개혁위원회에도 내가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적어도 9월 1일자로 학년제를 바꾸나갈려면 상당한 그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6개월을 단축시킨다든지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달씩 조정을 해 나간다면 적어도 3,4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9월 1일 학년제도는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내용은 대단히 좋다. 이런 내용을 내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우리 교육감하고 연석회의한 데서 회답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일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 교장을 대폭 인사하니까 학년초에 모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체현상이 오고 지연현상이 와서, 이것은 공감이 갑니다, 대단히 공감이 가는데 이게 아까 내가 답변속에 얘기했지만 이게 국가직이라나서 도교육감이 한

달전에 제청을 하더라도 교육부가 이것을 청와대까지 올려가지고 재가를 받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교육부도 한달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올 금년만 하더라도 금년에는 좀 봄 방학 전에 교장 발령을 내게끔 해다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1월 25일까지 원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약 한 10여일 앞서서 원안을 내달라, 교육부에서 원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더 늦어졌어요. 예년보다 더 늦어진 이유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 이름으로 발령을 내야 하기 때문에 2월 25일 이후에 가서 실제적인 발령이 났다 이겁니다. 금년의 경우는 좀 특수하겠지만 교육부도 이것을 빨리 내줘야 신학년 대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교육부도 안을 가지고 총무처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가서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이것이 또 실정에 맞게 이런 인사편제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이것이 지방직화가 되어 합니다.

이것은 소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 교원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지방직화가 되어 인사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지방화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하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예시를 한 지금 현재 정년이 2월 말일날 정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년하는 사람의 보충은 천상 3월 1일자 발령밖에 안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9월 1일자에 해도 대략 되겠죠. 그러나 수평이동도 거기에 결원이 생기는 것이 2월 말일자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9월 1일자 수평이동을 하는데도 몇사람 이동밖에 안돼요. 전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평이동이 판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도는 개선이 되어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용이치 않은 요소가 여러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상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되어 한다고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광수

조위원님 더.....

● 조일환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수

정만재위원님?

● 정만재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

● 이기수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광수

박동기위원님?

● 박동기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광수

이경윤위원님?

● 이경윤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초등교육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서 중에 4번, 5번, 7번, 8번을 초등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상세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몇가지는 아주 변명을 너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인원 총당 교직원들 인원 총당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직원들이 뭐 특수학교 담당교사를 기피를 한다.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60시간을

이수한 인력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수계획을 시도해 보았으나 현실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몇가지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임명자가 발령을 내면 보직발령을 내면 가야 됩니다. 보직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 교사가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기피한다 해가지고 발령을 안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60시간 이상 받은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몇분이나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로 하여금 발령을 내가지고 원래의 그 목적대로 교직에 몸담았으니까 장애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일반학생들이 됐든 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피를 한다고 해가지고 발령을 못냈다.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몇 개 대학을 제가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선생님들이 가산점수 때문에 방학 때도 가가지고 교육이수를 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нде도 그런 대책이 없다. 그런 것은 특수학생이 되고 장애자들이 돼 놓으니까 일반학생들보다도 어떤 차별화를 시켜서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의지가 없어가지고 교사들을 발굴하는데 좀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격이나 연수를 받은 그 교사들이 담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천여중에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처음에는 신학기 초에는 14명으로 장애자가 있다, 자료에도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그런데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10명인데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셨다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입학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달 신입생들이 입학한지가, 그러면 초등학교에도 분명히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그 장학사가 있을 것인데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현황 하나도 파악을 못해보고 입학 때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준다 이러면은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최소한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충북도내에 돌아가는 장애자들의 특수학급의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있어야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자체가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물론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극소수 학생들입니다만은 이런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좀 각별히 보살펴 주기를 부

탁들 드리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소수 장애학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해 주셔서 저도 그 업무를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혹시 이해가 잘 안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은 참고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격소지자나 교육이수자가 상당수 있으면서도 특수학급에 담당하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임지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특단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교육청으로서도 좀 어려운 상황이 교원의 인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권유해서 동의를 받아서 특수학급에 유자격자, 또는 연수이수자가 없는 학교로다가 전보를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현재 135학급 중에서 7개 학급이 좀 자격 요건에 부족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를 계획을 해도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격연수를 자격증을 주기 위한 연수

[제89회-제2차]

를 계획해서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번인가 했는데 그 양성기관에서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속을 해서 자격연수를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유는 자격자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자격자들이 양성기관을 나온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만 근무하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 때문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교 담당교사로 임명을 받기를 꺼려하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 도 인접도에서는 양성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 내에 소재한 자격소지자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모집하는 데도 응시자가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같은 데서 특수교육 연수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천여중에 관한 말씀은 실은 특수학급에 편성이 됐다가 지도결과 원적학급으로의 복귀된 상황은 저희들 종전까지는 학기에 한 번씩 그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로 받도록 하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점에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공했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광수

더 질문하시겠어요?

● 김정길 위원

아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챙겨보시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외받는 계층에 있는 학생들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디다만은 다른 위원님도 있고 시간관계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 의장 김광수

다 끝나셨습니까?

● 김정길 위원

예

● 의장 김광수

그러면 다음에 조일환위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조일환 위원

예. 우리 초등국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제가 오늘질문을 드리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해주셔서 오늘 초등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제가 여기에 기록을 남긴 것이

첫째 학교 교사의 장학인턴제 답변해 주셨
죠?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반장, 부반장에 대해서 답
변해 주셨죠?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예

● 조일환 위원

이 장학인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핵심이 무엇이나, 신바람나게 장
학할 수 있는 여건, 이 제도가 상당히 선생
님들이나 충주같은 경우에 초등 10명 중등
이 9명,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겨우 근
무시간 이외에 가정에서 컴퓨터를 치고 자
료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흔적
을 볼 수 있었었는데 이 분들에게 돌아가는
반대급부가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알아본 즉 아주 작은 금액의 지원 또 그
다음에 인사상 신상에는 0.25의 전출시의
가산점,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또는
열린수업이라든지 사실 일선에서 우리 신문
이나 이런 데서 일부 질타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지금 선생님들이 각성하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
겠습니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아 우리도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런 분들이 앞으로 포상의 기회의 균등이라
면 우선적으로, 또는 전문직을 응시할 때는
어떤 가산점을, 그 장학인턴제를 하는 선생
님의 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
기고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는 겁니
다.

그냥 막연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씀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이 제도가 그
야말로 좋다고 하시니 보다 적극적으로 그
교사들에게 유인가를 충분히 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특히.
반장, 부반장의 선거제도, 심지어 아홉명이
있는 학급에도 반장, 부반장, 40명이 넘는
학교에도 반장, 부반장, 과연 왜 필요합니
까 이 선거상에 말씀드린 대로 자장면을 사
주고 학용품을 돌리고 3월만 되면 이미 이
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어느 학부모는 반장이 자기 아들이 됐
는데도 환영하고 격려하기에 앞서서 “너 왜
반장이 됐느냐, 나는 지금 못살아서 너희
아버지는 일하고 나는 직장에 나가는데 내
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나가느냐” 기가 막
힌 사연입니다.

이 반장, 부반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심하
게 말하면 선생님의 심부름, 차렷, 경례 뭐
가 필요합니까? 해서 저는 과감하게 초등만

이라도 이 반장, 부반장 선거제도부터 없애고 1주일, 또는 한달, 1일 해서 그야말로 봉사하고 또는 리더십이라든가 민주시민의 이러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신바람 나는 장학활동을 하는 인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금 현장에도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계신줄로 압니다.

다수의 교원들이 모이는 기회때마다 저로서도 고마운 감격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상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원들을 위해서 예년에 없는 연구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교원이 승진에 사용되는 연구실적점을 부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교과연구회 조직에도 전례없이 거액을 지원을 해서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벽지도 아니고 가산점이 붙을 수 없는 도시 비농지역 이런 학교 교원들에게 사기를 돋우기 위한 시책을 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중에 전문직으로의 발탁같은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같은 것도 실제로

전향 방법에서 가산점이 되도록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신명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하면서 지원책이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반장, 부반장 제도는 저도 이런 점에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실은 명칭부터 초등학교에서 반장도 있고 분단장도 있고 전교어린이에서 부장도 있고 한데 어린애들 사회에서 이 계급의식을 없애고 장자를 쓰는 것을 어떻게 빼내 버리는 좋은 명칭이 없을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을 혼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기회있을 때 좀 협의해서 민주시민을 기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변화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수**

어떻게 질문 없습니까?

● **조일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재위원님?

● **정만재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광수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초등교육국장님 소관 보충질문도 전부 마치겠습니다.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소관 사항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충질문도 앞은 순서대로 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김정길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광수

조일환위원님?

● 조일환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체육을 전공해서 체육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도민체전도 사실은 전국체전의 선수도 선발하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 도민체전의 채점 시상방법도 그간 수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나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습니다만은 만년 하위팀의 학생은 무슨 죄입니까? 그 지역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통계상에 보면 그 시·군은 참가조차 못한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승기를 반환을 하고 또 시상대에 우승기를 흔드는 그러한 우승자의 영광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만년 그 밑에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이 열악한 오히려 힘은 더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종목별로만 시상을 하고 성취도나 그밖의 신기록 여러 가지 시상제도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소위 지역의 어떠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4천명의 학생과 청주시내 4만명이 학생이 대등한 경기를 할 수도 없는 걸 이것을 총점제로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 다소라도 그런 열악한 층의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별 종합시상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참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해서 아까 답변말씀을 드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을 한다든가, 종목별 등위만 시상한다든가, 또는 신기록 수립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

을 앞으로 집중 검토하기로 해당과하고 또 상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 의장 김광수

질문을 마치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에

● 의장 김광수

그럼 다음은 정만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정만재 위원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교생 총수는 중·고등학교 합해서 총 688명이고 이중 중도탈락 학생수는 188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복학생 688명중 중도탈락자가 188명이고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500명입니다.

이 500명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 복교예정자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명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계 3학년 학생의 현장실습 장소로는 동농과 또는 농장 등 여러곳이 있는데 주로 농고 3학년 학생의 현장실습은 어디에서 실시하였으며 실습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영농후계자는 농업의 증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도별 영농후계자의 수를 보면 1995년도에 16명, 1996년도에 12명, 1997년도에 14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가 적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그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중등교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수

답변해 주시죠.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정만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선 첫번째 그 복교생에 대한 재탈락생을 제외한 나머지 500여명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저희들이 한학생 한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 특별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혀 연락이 없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재탈락하는 학생 그 외의 학생들은 정상적인, 어렵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농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농장실습

장소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정만재 위원
 좋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번째 영농후계자 16명, 12명, 14명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는데 이 후계자를 늘리는 방법을 저희들도 이 부분을 늘리는 것이 바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길이고 농고를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동실습소 등 학교의 실습위주의 교육을 강화해서 영농기술을 충실히 습득하도록 해서 농업이 몸에 단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영농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부터 진로교육을 할 때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특히 이 영농 자녀들의 영농 농업에 대한 의식을 바르게 갖도록 하고 후계자들로서 역할을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상담 기타 지도를 계속하면서 농업이 천직이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것은 개인 생각이고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영농후계자들 제대로 육성하려면 영농자녀들이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

고 한다면 그 학생들에게 어떤 우대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업전공이 아니라서 답변에 미숙함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 **정만재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크게 세가지를 보충질의 했습니다.

그 첫번째 보충질의 중에서 첫번째 하고 또 두번째요. 총 복교예정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복교예정자수?

● **정만재 위원**

대개 대상자를 파악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관내에 말이죠.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복교예정자는 저희들이 아까 첫 번째 답변을 했을 때 2월, 3월에 걸쳐서 특별교육기관에 기간을 두고 그 학생들을 복교를 시켰습니다.

그 시킬 때에는 1년, 2년, 3년 자퇴생에 대해서는 모두 그 서신을 내보냅니다.

서신을 전부 학교별로 내보내서 복교의사를 타진을 하고 복교의사가 있는 학생은 복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자퇴생 또는 퇴학생이 거의 전부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만재 위원

그래도 중도 탈락자라든가 자퇴 이런 거 전부 합해가지고 나와 있죠?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 정만재 위원

나와 있지만 그 학생이 복교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여건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교할 수 있는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대충 조사한 것이 교육청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총 복교예정자수를 알면 그 중에서 몇 %가 복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지금 복교예정자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9 뭐 688은 그 복교한 학생이고 그 복교한 학생의 앞의 단계 복교대상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

문에 그것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지금 정만재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은 대략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97년도 이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이 이 도내에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은 600 몇 명이 지금 현재 학년초에 재입학을 했다는 얘기죠?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 의장 김광수

그런데 지금 현재 188명이 또 그만두고 550여명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광수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재입학을 해야 할 학생이 지금 정확하게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게 대충 아마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해 보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없습니다.”하고 말함)

● 박재현 위원

제가 조금.....

● 의장 김광수

예 위원님

● 박재현 위원

복교학생에 대한 정만재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복교생으로 인한 물론 개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또 사회문제를 학교가 끌어안고서 교육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물론 들어와서 학과에 적응도 못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와가지고서 다른 애들을 아주 쥐잡듯이 하고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 선의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것이 생활지도를 하느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데서 그 학생들 사이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예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그에 대한 학교에서 물론 각별한 노력이야 하겠지만 행정당국이나 학교나 이게 앞으로 선의의 학생들을 위해서 참말로 그 학생들의 지도가 절실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참말로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광수

박동기위원장님?

● 박동기 위원

없습니다.

● 이경윤 위원

거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예

● 이경윤 위원

복교학생의 입퇴문제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죠?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입퇴학요?

● 이경윤 위원

예 복교학생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복교학생은 학교장이 편입학을 시키되 학교에서 이 학생은 지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는 도교육청에다가 그 학생을 보내고 도교육청은 그 학생들을 단재교육원에서 면담과 기타 특별교육을 해서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으로서의 학교장이 일단 1차적인 입퇴학권을 가지지만은 학교장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경윤 위원

거부할 수는 없구만요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예. 도교육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다시 배치를 했을 때는 학교장이 반도록 받아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사실 지금 학교교육에서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퇴학제도도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부적응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장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만일에 부적응 학생이 있어서 도교육청이 요구를 한다면 의뢰를 한다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특별면담을 해서라도 환경을 바꿔주든 딴 학교에다가 재입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렇게 저렇게도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런 대안학교 제도를 바로 이 양업고등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이제 그 양업고등학교에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업고등학교 운영비를 사실은 일반 사립학교에 준한다면 3년간 운영비를 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안학교 제도는 우리에게 절실히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하면서까지도 이런 문제가 노출이 돼서 도 저희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던 학생을 앞으로 그런 방향전환을 하기위한 데서 이런 학

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또 대체로 복교한 학생들이 지금 만족하게 적응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판단되다 시피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교과실력이 못따라 가요 교과실력이 못 따라 가고 학생들한테서도 유리된 것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놀다가니까 내놈들이 내 또래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완력으로 다물려고 그러고요, 또 일반 정상적인 학생은 아 저건 문제아다 해가지고 기피현상이 올 것입니다. 당연히 유리현상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응시키느냐 하는 것이 소위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육관이지만서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연수 기회를 바로 꽃동네 연수기회를 준단든지 방학동안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특별연수를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애들 내몰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앞으로 끌고 갔는데 우선 당장 이 복교생 조치가 시작된지 불과 1년밖에 안됐습니다.

정착은 안됐다고 봅니다.

자꾸 이런 면이 정착이 돼야 할 것이고 정히 부적응 학생이 나온다면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안학교같은 데 의뢰를 해 볼려고 이렇게 해서 세운 제도입니다.

● 이경운 위원

에 이것이 복교생 조치문제는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일선학교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 또 지역사회의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남학생보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폭력사건도 더 강해집니다.

그럼 요즘 여학생들은 복교생들의 그 실태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사회에서 저질러 놓고 학교에 다시 복교돼서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이만저만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에 구속도 돼 가고 지역 사회 지탄도 받고 또 학교장이 무능하느니, 너무 안일하게 학교경영을 한다느니 이러한 여러 가지 질타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학교장의 절대 권한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었습니다.

학교장은 알게 모르게 정말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조치방안이 특별한 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일선학교장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일은, 외부의 입김이 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복교생 문제는 학생 생활지도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 더 심도있게 지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등교육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보충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중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다음은 이어서 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의 순서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오서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까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특수장애 학생들

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 3년동안에 이런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또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
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점이 2가
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첫 번째가 400명, 전체학생의 400명이상
되는 학교에는 1학급, 또 800명이상 되는
학교는 2학급 이렇게 지침이 있다고 말씀
하셨고그 다음에 학급당 학생수는 5명, 5명
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애학생이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1학급을 둘 수 있다
고 말씀하셨고 또 16명에서 30명까지는 장
애학급을 2학급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
하셨습니다. 맞죠?

● 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렇습니다.

● 김정길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전부가 우리 총
북에는 한학교에 한학급인데 그러면 16명
에서 30명 그 중간에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
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 관리국장 조신행

예

● 김정길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86
명의 재학생이 있는 학교에 장애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학교에는 장애인
이 19명이 됩니다.

그러면 16명이상이니까 이 학교는 분명히
장애인 학교가 두학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 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렇습니다.

● 김정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국장
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기준을
따지더라도 19명이니까 이것은 두학급이 있
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관리국장 조신행

예

● 김정길 위원

잘못된 것이고, 또 800명이상 재학생이
800명이상 되는 학교에 두학급을 둘 수가
있다 하는 그 기준을 따지더라도 이 학교에
는 재학생수가 1,286명이다 이겁니다. 그것
도 안맞고, 그렇다면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침대로 장애인 학급을 배정을 안하고 있
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즉 파악을 해보니까 재
학생 800명이상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같은 데는 음성 수봉초등학교에도
1,011명이나 되고 주성중학교에도 1,244명

이나 되는데 장애인이 10명이고 10명이면은 5명 기준으로 하면 두학급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학교가 충북에서 아홉군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번을 적용하든 2번을 적용하든 예시를 들어준, 지침을 들어준 1번 지침이나 2번 지침을 적용하더라도 충북에는 지금 아홉개 학교에 2학급이상을 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안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까 초등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학급에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게 5명을 기준으로 했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은 한두개 학교도 아니고 우리가 아홉개 학교나 되는데 이런 것은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학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몸이 불편하고 불구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기준에 맞게끔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 **관리국장 조신행**

예

● **김정길 위원**

다른 학생들처럼 교육기준에 맞게끔 지금 그 어려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고 혜택 속에서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 소외된 학생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책을 이 관계를 어떻게 대책 수립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교육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도 정말 좀 편하게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관리국장 조신행**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대상자는 우선 먼저 두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생수 800명이상인 학교는 2학급이상이고 400명에서 800명까지는 1학급, 400명미만일지라도 있을 때에는 1학급으로 정한 기준과 또 후에 말씀드렸던 학급당 학생수를 최저 5명으로 해서 5명이상 15명까지를 한 학급, 16명이상 30명미만인 경우를 2학급으로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서 학급수가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명이 되는 학교인데 한학급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밑에 그 15명이상이면은 30명미만으로 해서 두학급을 둘 수 있는데 한학급을 둔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청주농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16명에서.....

● 교육감 김영세

잠깐만요. 청주농고 관계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리국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는데 청주농고는 교실이 현재 부족합니다. 특별학급의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이 증축되면 두학급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고 교실증축되기 전까지는 잠정 한학급으로 한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정 조치입니다.

● 김정길 위원

예 그러면은 청주농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일일이 열거를 다해 줄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부 천명이 넘는 학교에 10명씩이 된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는 두학급씩 당연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죠. 그죠?

● 관리국장 조신행

그 기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5명이상과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학급

이 되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재학생수에 따른 학급수를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알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좀 학급당 인원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저 특별학급 교실을 할려면은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전체 화장실 시설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명정도 초과됐을 적에 또 한학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재정으로 사실 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명정도 초과된 것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갔고, 지금 대표적으로 청주농고 예를 들었는데 청주농고에서 지금 특별학급이 두학급이 될테니까 교실을 몇 개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4개를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4교실을 지어줘야 이것이 이상적으로 수행이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말이 그렇지 4교실 예산 다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특별학급 때문에 4교실 지어줄 여력이 지금 우리가 없기 때문에, 단 두학급 수용할 수 있도록 교실을 특별학급 교실을 두학급 정도는 늘려줄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김정길 위원

농고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면은 음성 수봉초등학교 말이죠 학생수가 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학생이 한학급에 초등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명이 적정수준인데 여기는 12명이나 됩니다. 장애인 학생이.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학급을 늘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몇군데 됩니다. 몇군데 되는데,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똑같은 장애인인데 어느 학교는 5명이 한학급이고 어느 학교는 12명, 13명이 한학급이고, 12명이 되고 16명이 되면은 농고는 해결이 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당장 물론 실현하기는 좀 힘드실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규정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관리국장 조신행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질문 끝나셨습니까?

● 김정길 위원

예

● 의장 김광수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님?

● 조일환 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서 대해서 준공검사 소위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관리국장 조신행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97년도 이후에 6개교와 그 6개교 중에서 2개교는 완전한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개교했다는 사실과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소방, 통신, 전기 시설 공사에 대한 미준공 검사 후에 개교됐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상 확인을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것이 국장님께서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6일날 해당 청에다가 유선으로 부탁을 드려 봤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 말씀이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준비가 잘 안돼서 후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십시오. 팩스로” 안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내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6일날 출근을 해서 과장님께 여쭙봤더니 이것을 공식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규정에 날짜가 지났든 안 지났든 간에 이 자료준비의 성격상 하루면 되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도 본 위원의 자료가 안왔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간단합니다.

신설개교한 학교에 총 종합적인 준공조서와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준공필증 이것은 사본이든 좀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확인을 안하셨다니까, 안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금년도 3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토목공사가 진행됐고, 때문에 용접공사가 진행이 됐고, 복도에 방화문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개교 이전에 모두 준공이 됐는데 어째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방문한 것은 3월 중순이 넘어서입니다.

상당고등학교, 오창고등학교 등 과거의 2년간 신설학교의 준공검사 내용을 밝혀본다. 빨라야 3월 20일 이후, 늦으면 4월, 학교에 따라서는 6월에도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만의 하나라고 안전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행히 22개월간에 우리 학교를 건축하는 소요기간이 약 8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철저한 대비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한번 3개 학교에 준공검사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즉 위원이 질문하는데 관계관계서 확인도 안해 보시고 자료증빙도 확인 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을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확실한 이러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김영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관리국장이 부임한 지가 안돼서.....

● **조일환 위원**

그러실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 **교육감 김영세**

실태파악이 잘 안됐는데 지금 조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의 학교 개교라는 게 22개월 설정을 하더라도 실제 공기는 10개월 내외밖에 안됩니다.

이 10개월 내외에 학교를 다 진다는 게 극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설립을 할려면 30개월 여유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적어도 18개월이상 공기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설계하고 뭐하다 보면 10개월에서 11개월에 그것을 질려고 하니 무리가 따르고 3월달에 개교를 할려니까 미쳐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학생수용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은 와있고 학교 문은 열어서 애들은 수용을 해야 되겠고, 준공은 채 안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준공검사하기 전에 벌써 학생들이 수용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가 지침을 내리기를 대표적으로 충주지역에 내렸어요. 충주지역에 3학교가 새로 생기는데 내년 3월에 개교를 덮어놓고 할 생각 하지 말아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9월 개교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 이전까지 기존학교에다가 수용을 해라 그래서 주민이 다소 원성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충주교육청에서 답변이 그러면 9월 개교를 들로 하고 하나는 주민이 이미 자꾸 들어오니 3월 개교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지금 충주교육청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용산초등학교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 학교도 공기가

충족할 적에 개교를 하지 이제는 주민이 와서 원성을 한다 하더라도 완공되지 않은 학교에다가 수용을 하고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차라리 9월 개교를 해라, 6개월간 기존 학교에다가 좀 과밀학교가 된다고 해도 그쪽에 수용을 해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질문요지를 기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본청에 보내기 이전에 해당 실무계장을 또는 계장이 없으면 실무자를 제가 면담을 다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우리 충북교육에 한 번쯤은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할테니 이러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국장님께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본 위원의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소위 도급경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리한 그러한 다인수 학교에는 교단선진화 예산을 특별히 증액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 이 교단선진화 예산은 소위 도급경비와 같이 일반학교운영비 여기에 써도 경리 절차상 관찮습니까?

● 관리국장 조신행

아니죠.

● 조일환 위원

안 됩니까?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도급경비의 범위가 아니고 목적교 부금입니다. 목적교부금인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급당 인원이 많은데가 이제까지 교단선진화 비용도 불합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농촌학교를 돌아보니까 학생수가 적더라도 똑같은 원칙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단선진화 비용도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급경비인 학교운영비도 그렇게 조절하겠다. 이것은.....

● 조일환 위원

아 그런쪽으로. 제가 오해를 했던 잘못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불리한 학교는 이 교단선진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줘서 그것을 보완을 해 주시겠다. 저는 이런 쪽으로 들어서, 이것은 목적경비인데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경리 집행상 모순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독립유치원사 같은 경우에도 4학급에 160명, 5학급인 학교는 200명입니다.

시골학교에 100명자리, 70명자리 학교에 두배, 세배의 학교예요. 그런 유치원에 원

당 경비를 안준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해당학교, 남산초등학교, 교현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공과비라든지 제 보수선이라든지, 또는 교육 간행물이라든지, 이 도급경비로 쓰는 학교경비는 그냥 급당경비로만 충당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의 계통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독립유치원사가 있는 지금의 예산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 교육감 김영세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면은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독립된 학교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상.....

● 조일환 위원

독립유치원사라도.....

● 교육감 김영세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냥 원사만 독립원사로 지어 준 것이지 이것이 별개의 교당경비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급당경비를 초등학교보다 원당경비를 더 준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것은 조금 더줬다는 거죠?

● **교육감 김영세**

예 더 줬죠. 더주고 교구 비용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치원이 완전히 명실공히 독립원사가 돼서 원장이 따로 있다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원 규정상.....

● **조일환 위원**

글쎄요. 병설이라서.....

● **교육감 김영세**

그래서 교당경비는 별도로 못주더라도, 그래서 급당경비를 일반 학급보다 더 높여 주었고 교구비용을 별도로 주고 이래서 조정을 균형을 맞춰가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하나는 이제 이 각학교마다 운영비중에 그런 것이 있지만 아직 독립유치원사를 새로 지은 학교는 새로 지어 수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유지비를 금년도에 학교별로 오래된 학교는 더 추가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학교는 그 재산유지비로 그것을 카바해 즐려고 하고 있고 또하나 유치원도 독립원사같은 새건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다가 한 학교,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리를 해주든지 재산유

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학교일수록 독립유치원사 때문에 더욱 예산이 열악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사무분장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학급 학교에도 조무원은 두사람이예요. 왜 두사람이나, 숙직이 문제다 숙직. 또 그런 학교가 분교가 있는데 기사는 기사대로 있습니다. 기사는 기사대로.

지금 우리가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교에서 사무에 시달리는데 운전기사는 출퇴근 아이들 시키면 그만이에요. 또 조무원은 사실 작은 학교에 두사람이 숙직 이외에 뭘 크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일선학교, 교육계에도 뭔가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해서 조무원 한사람을 어떤 형태로 해서라도 사무를 도와준다든지 또 운전기사가 조무원의 역할을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효율적인 학교의 사무운영이 요망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국장 조신행**

그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원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수

질문 끝나셨습니까?

● 조일환 위원

예

● 의장 김광수

그럼 정만재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정만재 위원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

● 이경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수

이경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윤 위원

교육위원 이경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교명, 교사, 교기의 통합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공식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타시·도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관리국장님의 답변가지고는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만이 1교장 1교감 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실시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1개 통합교에 교장 2, 교감 2 체제로 출발을 했고 또한 경북 2개교와 제주 1개교는 교장 1에 교감 2 체제로 출발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것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교장 1교감 문제는 통합학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장이 중등국일 적에는 초등에서 교감을 두고 교장이 초등일 적에는 중등에서 교감을 두어서 1교장 1교감 체제로 한다는 것은 9년제 학교를 시작할 적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 통합학교라는 것이 학급이 몇학급입니까? 불과, 통합학교라는 것이 학급이 지금 9학급 이상을 법적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개 통합학교라는 게

복식수업을 합니다.

그럼 5 클래스(class) 내지 6 클래스(class)예요. 5 클래스(class) 내지 6 클래스(class)에서 교감을 들 들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사실상 단일학교로서, 앞으로 나는 6학급 미만은 교감도 없앨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인원절감을 할려고 그러합니다.

교장 혼자 4학급, 5학급 짜리는 교장 혼자 다 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교가 3,4학급짜리 분교는 교감만 두고 하고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감도 없이 주임교사가 책임자 대행을 하는 분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통합학교의 중등과정, 초등과정을 카바(cover)하기 위해서 서로 섞바꿔서 하고 있어요. 초등에서 교장 하면은 중등에서 교감을 두고, 중등에서 교장을 두면 초등 교감을 뒀는데 지금 중등 교장을 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중등 교장을 두고 초등 교감을 둔 데는 아무 불만이 없고 운영에 이상이 없는데 초등 교장을 두고 중등 교감을 두니까 초등 교장이 중등학교를 운영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인사방침을 제고해야겠어요. 제고해서 중등 교장을 두고 초등 교감을 두겠다. 또 우리 나라에서 9년제 학교가 시작할 적에 1교장 1교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게 성안이 된 것입니다

다.

그렇게 성안이 돼서 취지는 그렇게 된 것이고 생각을 해 보세요. 통합학교를 만들고 교장을 들 들려면 뭐하러 통합학교를 합니까?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지. 한 울안에 교장이 들이면 학교가 두개지 어찌 한 개입니까, 통합학교가 아니예요 성격상.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단지 교감을 들 들 수 있느냐, 교감을 들 들 수 있느냐는데 교감도 우리가 학급 수가 많아질 적에 그야말로 복식 교감을 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이것은 불과 1,2백명 가지고서 교감을 들씩 들 수 있냐,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칙상 우리 도에서는 1교장 1교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상 그렇게 하겠고, 또 만일에 초등 교장을 두어가지고 중등 과정을 운영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면 중등 교장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교감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1교장 1교감은 꼭 그대로 고수할 것이고 단지 교명이나 교가나 교기에서 교명은 이미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성초·중학교입니다, 한성초·중학교. 또 병방초·중학교입니다. 별방초·중학교이기 때문에 교명은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

이고 교기나 교가는 초·중학교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서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참 초등 교장인 경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영세

예

● 조일환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럼 전부다 중등만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초등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중등교사가 문제냐, 그 학교의 초등교장이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한 번은 제고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것을 시행하실 때에는 충분히 초등부터 생각해 보시고 또 중등교사, 이런 쪽도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사람, 정말 적재적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것이 전부다 중등만 한다면 또 초등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해 주셔야지.....

● 교육감 김영세

초등학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9년제 학교가 나온 뒤에는 한군데는 초등

교장을 두고 한군데는 중등 교장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중등 교장을 둔 데는 아무 문제가 안나와요. 초등 교장을 둔 데서 이 문제가 이번 이경윤위원이 질문한 것 뿐이 아니에요. 또 그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장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 문제가 한계점이 온다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한대로 성과가 올 적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도한대로. 균형을 맞춰서 초·중등을 하나씩 갈라주었는데 왜 초등만 자꾸 이렇게 능력이 없으니.....

● 의장 김광수

예. 교육감님 답변을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더 질문있으십니까?

● 이경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용단과 어떠한 현지에 교육감의 의지를 심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얘기가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통합학

교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에 대한 그 보완과 또 적극적인 예산상의 지원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질문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광수

예. 관리국 소관입니까?

● 이경윤 위원

될 수도 있겠죠?

● 의장 김광수

예 그럼 말씀하세요.

● 이경윤 위원

현재 우리 도에 명퇴자가 확정되었는지 되었으면은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 명퇴자 확정 명단과 그 기준을 밝혀주실 수 있는지 그것좀.....

● 교육감 김영세

명퇴자 결정은 내가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결재단계에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바를 말씀드리죠. 명퇴자 신청이 전부 142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1단계로 지병을 가진 사람이 제1심사 대상,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명퇴신청을 한 사람, 그 다음에 2심 과정, 그 다음에는 예산 여유가 있을 적에 신청자 전원을 해주는 방안 이렇게 가지고서 심사를 했더니 30년 이상자로 따질 적에 30년 이상자로 따질 적에 중등은

여섯명이 탈락이 되고 초등은 30여명이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중 등에 여섯명이 탈락이 되는 사람을 보니까 사립학교에 과원이 있는 학교가 하나요, 그러니까 이 과원은 천상 정리할 대상이고, 그리고 중등이 다섯명 남은 사람 중에 보니까 세사람이 전부 지금 채무에 시달린 사람, 채무에 시달려 가지고 도저히 현직에 있어도 월급차압을 당해가지고 교직을 유지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에 요전 추경 심사했을 때 보니까 불과 추경심사때 60억인가 통과시켰죠?

(관계관석에서 “40억” 하고 말함)

40억을 예산수립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 집행하자면 한 20여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가 또 명퇴자는 전원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은 전원 여섯명이니까 전원하고, 초등의 경우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지금 전원을 명퇴를 받아준다면 충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도 220명을 채용을 해놓았는데 220명을 채용할 때에는 1년 충원하고서 다소 여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시효니까 내년엔 가서 조금 덜 뽑으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예산을 뒤집어엮고 명퇴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희망하는 자를 전원 해준다면은 초등

[제89회-제2차]

의 경우는 인력수급이 약 40명이상 수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것을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한다면 기간제 교사로서 희망자가 등록된 사람이 전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60이상 짜리입니다.

명퇴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이 기간제 요원으로 등록을 해서 젊은 요원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의 경우는. 그러면은 60여세 된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 보다는 현재 명퇴자 중에서 경력 짧은 사람을 다소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초등의 경우는 30년이상 자를 적용을 하니까 한 30명이 명퇴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재정은 예비비를 조정을 하더라도 해줄려고 했으나 수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테니가 현재 내가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결재단계에 있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이경윤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살기 어려운 때가 되니까.....

● 의장 김광수

이위원장님 다른말씀 하시지 말고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 이경윤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어려운 때가 되니까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들어주느냐, 못들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선현장에서는 이것이 혹시 어떠한 주위의 배경과 좋지않은 의혹이 여기에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지않은 현장의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일선현장에 정확한 기준을 발표하고 명단을 발표해 주신다고 하면은 어떠한 의혹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충북 도가 명퇴자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밝게 처리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우려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김영세

이것만 알아주세요.

중등은 전원 해줄 것이고 초등은 30년이상 자, 그리고 지병을 가진 자, 왜냐하면 초등도 다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개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고 하니 명퇴신청을 했다가도 지금 철회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 의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다른질문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p>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p> <p>그러면은 관리국소관 보충질문도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p> <p>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p> <p>(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p> <p>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서 교육위원님 여러분들 아주 진지하고 자세하게 질문 또 보충질문을 해주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p> <p>그리고 집행청의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p> <p>좀 아쉬운 것은 우리들이 질문서를 미리 보내면은 그 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p>	<p>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p> <p>수고하셨습니다.</p> <p>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p> <p>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폭넓고 깊이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감님을 위시한 집행청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p> <p>내일의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 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p> <p>이상으로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7시 20분 산회)</p>
---	--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김광수,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박동기,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관리국장 조신행,	공보담당관 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 윤본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김흥묵.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5월 9일 (토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광수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89회-제3차]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p>	<p>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행정질문을 하였으며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하는 등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는 등 본 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11시 05분 폐회)</p></p>
---	---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김광수,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박동기,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관리국장 조신행,	공보담당관 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윤주택,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김홍묵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89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8. 5. 6. ~ 5. 9.(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8. 5. 6.(수) 10:00 11: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8. 5. 6. ~ 5. 9.(4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안설명) 3.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산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 충주 매각대상 폐교	
5. 7. (목)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 청원 매각대상 폐교 - 영동농공고 매각대상 실습지	본회의 휴회
5. 8. (금) 10: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질문 [제2차 본회의 산회]	
5. 9. (토) 11:00	[제3차 본회의 개의] 1.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3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89-1 호
의 결	1998. 5. 9.
년 월 일	(제 89 회)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8. 4. 2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89 - 1
----------	--------

제출년월일 : 1998. 4. 2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추가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처분

- 영동농공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7번지 1필지 6,497m²
- 폐교재산 매각 4교
 - 충주 (구)창암초등학교
 -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산22-2번지의 10필지 20,586m²
 - 위 지상 건물 6동 841.18m²
 - 위 지상 공작물 7종
 - 위 지상 입목죽 595본
 - 청원 (구)옥산초등학교 금계분교
 -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223번지의 5필지 13,744m²
 - 위 지상 건물 9동 1,137.28m²
 - 위 지상 공작물 4종

- 청원 (구)현도초등학교 노산분교
 -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의외 2필지 8,735m²
 - 위 지상 건물 7동 841.46m²
 - 위 지상 공작물 5종
- 청원 (구)남성초등학교 산동분교
 - 청원군 남성면 관정리 277-1번지의외 2필지 9,921m²
 - 위 지상 건물 6동 1,284.55m²
 - 위 지상 공작물 5종

3. 제안근거

-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설명자료 : 별 책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계	토지				5	59,483	2,272,328	5	59,483	2,272,328
		건물				4	4,104.47	379,775	4	4,104.47	379,775
		기타				4		18,394	4		18,394
	4. 매 각	토지				5	59,483	2,272,328	5	59,483	2,272,328
		건물				4	4,104.47	379,775	4	4,104.47	379,775
		기타				4		18,394	4		18,394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매각대상 재산목록 (7-3)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금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영동농공고등학교	토 지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7	6,497	1,754,190	하반기	영동군보건소 이전부지	영동군	1쪽
2	구, 창암초등학교	토 지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산22-2 번지의외10필지	20,586	138,265	·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	2-5 쪽
		건 물	·	841.18	40,672				
		공작물	·	7종	9,157				
		입목죽	·	595본	6,896				
3	구, 옥산초등학교금계분교	토 지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223번지 의 5필지	13,744	63,521	·	·	·	6-9 쪽
		건 물	·	1,137.28	115,790				
		공작물	·	4종	854				
4	구, 현도초등학교노산분교	토 지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 외2필지	8,735	264,331	·	·	·	10-13 쪽
		건 물	·	841.46	88,905				
		공작물	·	5종	923				
5	구, 남성초등학교산동분교	토 지	청원군 남성면 관정리 277-1 번지의외2필지	9,921	52,021	·	·	·	14-17 쪽
		건 물	·	1,284.55	134,408				
		공작물	·	5종	564				
계		토 지	5 교	59,483	2,272,328				
		건 물	4 교	4,104.47	379,775				
		공작물	4 교	21종	11,498				
		입목죽	1 교	595본	6,896				
		계				2,670,497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범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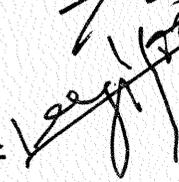
의 장

김 광 수



위 원

이 기 수



위 원

박 동 기



의사국장

강 인 형

